

# 빠름 속 禪적인 몸동작 '기대'

## 한국국제문화교류회 초청 네팔왕실 국립무용단 내한



네팔의 전통민속춤은 화려하면서도 경쾌하다.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여 사찰과 공연장에서 네팔의 무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춤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회 초청으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총 20여 사찰과 공연장을 돌며 순회공연을 펼치는 '왕실국립무용단 특별공연'이 바로 그것. 4월 21일 종주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5월 18일 대구 불광사, 5월 24일 동두천 시민회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네팔 무용은 화려한 무대의상을 입고 나온 무용수들이 빠른 몸놀림속에서도 전통악기의 리듬에 맞춰 정적인 춤사위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국가답게 화려함과 빠른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선적인 몸동작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명상에 잠기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 네팔무용단은 '바즈라 요키니 댄스' '아라티 댄스' '파트라 삼바바' '쿠루티 댄스' '마티타리' '보즈푸

## 4월 15일부터 75일간 20여 사찰 순회하며 공연 '바즈라 요키니 댄스' 등 30여 민속춤 소개 예정

리 댄스' 등 30여가지 춤을 선보인다.

이중 눈여겨 볼 것은 '바즈라 요키니 댄스'다. 탄트라 불교에 근원을 두고 있는 네팔의 고대 전통 댄스인 이 춤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바즈라 요키니의 복장을 한 무용수가 나와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준다. 또한 '타방 세로 댄스'도 네팔 전통 문화의 풍취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춤이라 주목된다. 타방 공동체에서 널리 추는 이 춤은 셀과 복장을 한 무용수들이 나와 경쾌한 걸음걸이와 웅장스런 투사의 굽고 강한 동작을 보여준다. 청년층들이 좋아할 순서도 마련돼 있다. 네팔 남부지역에 있는 파루지역공동체에서 유행하는

'호리아 댄스'다. '호리'는 보통 2~3월이 지역공동체의 큰 축제 중 하나로 이 기간동안 축제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물과 물, 그리고 분가루를 뿌리며 동글게 모여서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호리아 댄스'도 이 축제의 모습을 본따 춤으로 만들어 젊은 관객들이 이 춤을 감상한다면 어깨춤을 함께 따라할 정도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제문화교류회 남광일 대표는 "이번 공연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비니동산의 복원과 티베트불교 난민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선행사로써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문태준 시인이 선별한 詩모음집 <포옹-당신을 안고 내가 물든다>

프리 헤그가 이슈가 되는 요즘, 따뜻한 온기를 품고 독자들을 안아주겠다는 시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단의 젊은 스타, 미당문학상·소월시문학상 수상자 문태준 시인이 선별한 시들을 엮은 시집 <포옹-당신을 안고 내가 물든다>가 그 주인공이다.

문태준 시인은 이번에 선별한 시들이 "제 사랑의 과거였으며 여전히 미래인 지독히 사랑하는 시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꽃을 기르는 마음으로 이 시들을 모아달라"고 당부한다.

<포옹>에는 장석남 시인의 '낮은 목소리'에서부터 도종환 시인의 '여백', 유안진 시인의 '문명 가서' 장대승 시인의 '침들이 높다' 강은교 시인의 '빛방울 셋이' 등 주옥같은 69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포옹>이 특별한 것은 여러 시들의 모음편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시집 안에서 문태준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시들과 아름다운 감정의 교류를 이어간다.

장석남 시인이 '낮은 목소리'에서 '술가락으로 말해줘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라고 노래하는데 대해 문 시인이 화답을 한다. '부디 소라나 모시조개로 말해줘, 아가의 조막만한 손으로 말해줘, 살얼음으로, 반짝이는 빛으로 말해줘'라고.

"나의 눈물에는 왜 목이 들어있는가"라고 묻는 정호승 시인에게 "합박처럼 땀방울이 다시 차올라다 맑은 아침의 영혼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여러 시인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와 어울리는 문태준 시인의 시 읽기를 엮는 재미도 더해준다. 이 겨울이 가기 전, 영혼을 쉬게 하는 침묵 같은 시들의 향연에 찾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지연 기자



## 찬불가 발전... 포교활동 확대

###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불교음악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깊은 학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찬불가 운동은 우리의 것이 아닌 음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우리의 것으로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

한국불교음악의 역사는 조학유 스님께서 정당한 기록을 남겨 놓으셨기에 현재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상모 박사님의 찬불가운동이 좀 더 활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렇으면 학문의 도량인 동국대에서 불교음악이 활발히 진행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찬불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들과 아름다운 감정의 교류를 이어간다.

1천여곡이 넘는 가사를 직접 쓰면서

이길상 김중현 등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분의 비구니 스님인 수법 스님의 주도로 시명스님, 최조영교수, 연정숙선생님들이 성악동인회를 결성해 활동했으니 스님의 갑작스러운 열반으로 침체되었다.

그러나 운문 스님과 석주 스님의 노력으로 침초사 어린이합창단의 음반 및 카세트 테이프가 제작 보급돼 찬불가를 살리는 기록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불교음악계의 상황이 열악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시기에 큰 힘이 됐던 권상모 스님은 불교음악계의 등대와 같았다. 스님은 창작자들에게 작곡할 때 필요한 피아노를 보시했고, 창작자들은 스님에게 좋은 작품으로 보답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찬불가는 한층 더 발전되어 갔다.

불교음악을 만들기 위해 작곡가를 직접 섭외하고 사비를 털어 작곡료를 마련해 불교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 조학유 스님 기록 남아 정리 가능

### 서창업씨 최초 성인합창단 구성

### 운문·석주 스님 찬불가 보급 앞장

그 러 나 지금까지 작품으로 승화된 찬불가는 서양음악을 기초로 하여 작품을 완성되어갔다. 하지만 이것을 발표하고자 노력한 이가 바로 변선생이었다. 변규백 선생의 노력으로 찬불가가 비로소 작품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해마다 연주회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연주회를 열고 공연 후 음반을 출시했으며, 찬불가를 집대성해 지도자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찬불가 2,000여 곡을 공모해 그 중 100곡을 선별, 합창곡집을 출간했으며, 신도용 찬불가를 제작했다. 지금까지는 일부의 뜻이

는 사람과 단체에 의하여 구성되고 행하여진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계획과 실천으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 안병길

1959년 총남 부여군 은산 출생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찬불가 편찬 위원(신도용/합창곡) 한국불교음악역사관 건립 위원(현)지정사/원적사 지휘자(현)(사)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 "소외받은 이들에게 시적 지평 넓혔다"

###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 신달자씨 선정, 5월 12일 시상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제12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신달자(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사진) 씨 등 4명이 1월 31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부분에 신체의 시 '저 거리의 암자'와 '저 허공도 밝이다', 시조부분에 홍성란 씨의 시조 '명자꽃', 소설부분에 윤우형 씨의 소설 '꽃밭 랩소디', 평론부분에 이승원(서울여대 국문학과 교수) 씨의 평론집 <감성의 파문>이 각각 뽑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현대불교문인협회 및 계간 <불교문예>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총재 지관)는 그동안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 시조, 소설, 평론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매년 선정 발표해 왔다.

신경림 심사위원장은 "신달자씨의 시 세계를 관류하는 주제는 인간의 운명과



외로움, 숙명적인 상실감이며, 최근에는 더욱 시선을 넓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시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그의 세심하고 읽는이의 가슴을 잔잔하게 적셔주는 시어를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 시단의 기쁨이자 축복"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은 5월 1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단보이·진단오통·침판·오통차  
대홍포·화차·인삼오통차·40여가지의 차

瑞榮香耳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숙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술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쌀, 수수, 조, 감경쌀, 옥수수)과 옛 집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뱀·뱀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원 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원 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인진숙조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웃이오르지않는 **산사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향양,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산사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사조청원**

##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 출가하여 사중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8세 이상 50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무량사 주지 백**

##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족자는 금강경 5175자를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장이신 정담(廷潭)스님께서 금본으로 한달동안 정성을 들여 직접 쓰신 작품입니다.

불자여러분이라면 돼지해에 집집마다 하나씩 소장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삼재에 든 巳·酉·丑(뱀띠, 닭띠, 소띠)생은 간절하기도와 족자의 기운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을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불자님의 가정에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가 격 : 36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 기 : 세로 180cm X 가로 78.5cm  
(양면은 14K금본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 (값19,000원), '사주에 모든걸이 있다' (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 (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 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무신사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전화 : 011-488-0316 / 051-806-0316